

호랑이 방망이 5월은 '기록의 달'



팀 통산 3만 안타·'바람의 아들' 이종범 2000안타 눈앞

KIA 타이거즈 타자들이 5월 대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3일 현재 KIA는 팀 3만 안타 기록에

35개를 남겨두고있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한·일 무대 통산 2000 안타 기록에 29개를 더하면 된다.

지난해 6월 2일 삼성은 11안타를 터트리며 프로야구 최초로 3만 안타를 돌파한 팀이었다. 두산은 지난 4월 11일 3만개의 안타를 채웠다.

통산 세 번째 3만 안타 고지를 놓고 KIA 타자들이 LG 타자들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3일 현재 KIA는 2만9965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LG는 2만9978개의 안타를 때려냈다.

35개의 안타가 부족한 KIA에 비해 LG는 22개의 안타만 채우면 프로야구 통산 세 번째로 3만 안타를 기록한 팀이 된다.

하지만 최근 KIA 분위기가 좋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KIA 타자들이 지난주 사직에서의 주말 3연전 동안 장단 39안타를 몰아치면서 타격감 조율에 나섰다.

1·2군 타격코치 교체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KIA는 일시 귀국했던 마츠바라 인스트럭터가 재합류하면서 지난해 재미를 봤던 '마츠바라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중 마운드가 불안한 최하위 한화를 만나는 것도 호재다.

LG도 최근 침체분위기는 주중 만나게 되는 두산과의 대결에서는 만만치 않은 자력을 과시하곤 했다.

양팀이 주중 3만 안타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KIA와 LG는 주말 잠실에서 만나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종범의 방망이는 2000 안타를 겨냥하고 있다. 이종범이 3일 현재 기록한 통산 안타는 1685개. 하지만 일본 주니치 시절 기록한 286개의 안타까지 더하면 한·일 무대 통산 1971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2천 안타까지는 29개가 남은 셈이다. 한국프로야구에서 2000안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삼성의 양준혁과 SK코치로 뛰고 있는 전준호가 유일하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준혁은 2304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전준호 코치는 2018안타를 남겼다. 올 시즌 89타석에 선 이종범은 1개의 홈런을 포함해 18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종범>

한화 구천서 코치, KIA '우승반지' 받은 까닭은?

작년 KIA 코치서 한화로 이적 올 첫 광주 원정서 뒤늦게 받아

한화 유니폼을 입고 친정을 찾은 구천서 코치가 뒤늦게 '우승반지'를 건네 받았다.

2005년부터 지난시즌까지 KIA 수비코치로 활동했던 구천서 코치는 올 시즌 한대화 체제로 재구축된 한화로 팀을 옮겨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천서 코치

구천서 코치는 KIA 덕아웃을 찾아 조별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인사를 나누며 친정 나들이를 즐겼다. 뜻밖의 선물도 받았다.

새 유니폼을 입고 광주를 찾은 것은 4일이 처음이다. KIA와 시범경기가 대전에서 열린데다 4일 경기가 시즌 개막 이후 KIA와 한화의 첫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구천서 코치는 KIA 덕아웃을 찾아 조별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인사를 나누며 친정 나들이를 즐겼다. 뜻밖의 선물도 받았다.

구천서 코치는 "반지 사이즈도 딱 맞고,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다"며 팀의 연패 행진으로 울적했던 심정을 달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태균 또 역전포 '꽂'

시즌 8호째... 이틀연속 팀 승리 이끌어

'한국산 거포' 김태균(28·지바 롯데)이 이틀 연속 역전 홈런을 터트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태균은 4일 일본 지바현 지바 마린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니혼햄 파이티스와의 일본 프로야구 홈경기에서 3회 솔로 홈런을 날리는 등 볼넷 2개를 얻으며 3타수 2안타를 쳤다.

0-1로 뒤지던 롯데가 3회 이구치 다다히토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동점을 만든 직후 4번 김태균이 타석에 들어섰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낸 김태균은 볼카운트 1-2에서 요시카와 미쓰오가 던진 가운데 높은 시속 138km짜리 직구를 놓치지 않았다. 시원하게 방망이가 돌아갔고 잘 맞은 타구는 왼쪽 담을 훌쩍 넘기는 역전포가

됐다. 왼쪽 외야 스탠드 상단에 떨어지는 대형 홈런이었다. 시즌 8호로 비거리는 무려 130m나 됐다.

또 이 홈런은 김태균의 시즌 6번째 결승 타점이 됐다. 롯데는 김태균의 홈런을 발판 삼아 10-1로 크게 이기고 리그 1위를 질주했다.

김태균은 연타석 홈런을 날린 전날 니혼햄과 경기에서도 1-2로 뒤진 3회 역전 3점포를 터트린 바 있다. 4-4로 동점이 된 5회에는 결승 솔로포를 추가했다.

이틀 동안 홈런 3개를 날린 김태균은 이로써 최근 5경기에서 무려 6개의 대포를 몰아치는 무서운 타격 감각을 과시했다.

김태균은 4일 4회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6회 볼넷을 골라 출루한 후 오마쓰 쇼이쓰의 홈런 때 홈을 밟아 이날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7회에는 1사 주자 없을 때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2루타를 쳤다. 2루에 안착하고 나서 대주자 헤이우치 히사오로 교체되면서 이날 플레이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 결과 타점은 34개가 됐다. 6경기 연속 타점이다.

또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타율은 0.321에서 0.328(137타수 45안타)로 조금 올랐다.

한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4)은 이날 도쿄돔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홈경기에서 7회초 대수비로 투입돼 1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승엽은 7회말 1사 2루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타율은 0.200에서 0.194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LPGA 신지애 확정

세계 1위

PGA 미켈슨 도전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세계 1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신지애는 4일 발표된 톨레스 여자세계골프랭킹에서 평균 9.29점을 받아 2007년 4월부터 1위를 지켜온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밀어내고 톨랭커가 됐다. 2006년 2월 처음 발표된 여자세계골프랭킹에서 아시아 선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신지애가 처음이다.

지난 2년간 참가한 대회 성적은 근거로 선정되는 세계랭킹에서 신지애는 61개 대회에서 566.68 포인트를 쌓아 평균 9.29점을 받았다. 지난 2일 일본여자프로골프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것이 1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2개 대회에서 386.58점을 쌓은 오초아는 평균 9.20점을 받아 간발의 차로 1위 자리를 신지애에게 내주고 2위로 현역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미켈슨

메이저대회 4승을 포함해 38승을 올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단 한번도 세계골프랭킹 1위에 오르지 못했던 필 미켈슨(미국)이 타이기 우즈(미국)를 제치고 1인자에 오를 수 있을까?

올해 마스터스 우승으로 주가를 한층 높인 미켈슨이 6일(한국시각) 미국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세계랭

킹 1위에 도전한다. 미켈슨은 2일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평균 9.66점을 기록, 258주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우즈(11.17점)를 추격하고 있다.

세계골프랭킹위원회는 미켈슨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우즈가 5위 밖으로 밀려나면 미켈슨이 1위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80점을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산 거포'의 위용

'한국산 거포' 김태균이 4일 일본 지바현 지바 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티스와의 일본 프로야구 홈경기에서 3회 역전 솔로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연합뉴스